

FTA 협상·미국산 쇠고기 내달 수입 재개

축산농 “망하는 건 시간 문제”

올 수입 물량 21만t... 불안 심리에 ‘홍수 출하’ 한우 40%·돼지고기 19% 등 가격 하락 전망

광우병 과동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10월 중순 국내 유통이 확정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도 앞두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금지 전인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19만9천443t이었으며, 올 수입물량은 20만~21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우병 과동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10월 중순 국내 유통이 확정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도 앞두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금지 전인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19만9천443t이었으며, 올 수입물량은 20만~21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 떨어질 전망이다. 또 돼지고기·닭고기(관세 20~25%)도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 가격은 현재보다 10~15% 떨어지고, 생산액도 각각 6.3%와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대형 소매유통업체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국내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적지않은 소비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관세율이 40%에 달해 다른 축종보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크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3년 수준인 41%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관세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축산부문의 생산액(2004년 기준)이 5천억~7천500억원 정도 줄어든다.

미국산 쇠고기(관세 40%)는 5년후 현재보다 28.6%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국내 한우가격은 11.5%, 생산은 5.7% 떨어질 전망이다.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비용-4인기준

양동시장 11만 8,200원 대형마트 15만 2,070원

추석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살 경우 대형마트보다 30% 가까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차례상 준비 가격은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전국 평균보다 6%이상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물가협회와 공동으로 광주 양동시장과 롯데마트 상무점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차림(4인 기준)을 위한 24개 제수용품의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이 11만8천2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사기 위해서는 15만2천70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재래시장 가격이 대형마트 가격에 비해 28.7% 저렴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은 전국 평균(재래시장 : 11만1천364원, 대형마트 : 14만5천433원)보다 재래시장은 6.1%, 대형마트는 4.6% 비싼 것이다.

재래시장보다 비싼 가운데 대형마트의 가격이 재래시장 가격에 비해 채소와 임산물 38.9%, 생육과 유란이 37.2% 비싸 평균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개별 품목별로는 대형마트 가격이 간토란은 134.7%, 단감은 113.3% 더 비싸 가격차가 가장 컸다. 이에 반해 재래시장 가격이 대형마트에 비해 높은 품목은 배(44.7%), 약과(27.3%), 돼지고기 전가리(16%), 밀가루(15%) 등 4개 품목에 달했다.

시장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수요증가로 제수용품 가격은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오르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조사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광주지역의 경우 고사리 등 5개 품목은 기준치 비교가 불가능해 지방 평균가격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준비가격은 13만4천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5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지역 제수용품 가격을 품목별로 보면 전 분야에서 대형마트가

주가지수	환율	금리
+11.40 1,371.43 (코스피지수)	+1.00 944.70원 (원/달러)	보합 4.61%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9.91	(+4.45)
다우(27일)	11,689.24	(+19.85)
나스닥(27일)	2,263.39	(+2.05)
넷케이	16,024.85	(+76.9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40엔	(+0.91)
유로 달러 환율	1.2723달러	(+0.29)
3년만기 회사채	4.95%	(보합)
클금리	4.47%	(보합)

광주세관, 제수용품 밀수 집중 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와 가격급등에 따른 밀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수산물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보따리상이나 해외여행자를 통해 참깨 등 농산물 밀수입도 증가할 것에 대비, 여행자 휴대품 검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간독소의 주범 술과 스트레스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술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간염을 유발한다. 건강한 간을 위해서는 술을 적당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기능을 검사하는 현대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간기능을 검사할 수 있다. 이는 통증이 없고, 검사 시간이 짧으며, 검사 후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건강을 위한 5가지 팁: 1. 술을 적당히 마시라. 2.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3.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라. 4.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 5. 흡연을 피하라.



선물배송 바쁘다 바빠. 추석을 1주일 앞두고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의 선물세트 배송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추석 하루전까지 선물세트를 배송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콜렉트 콜 요금 최고 20% 내린다

KT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수신자요금 부담 유선전화 서비스인 콜렉트콜 통화요금이 5~20% 내린다. 콜렉트콜 서비스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군인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KT는 28일 군장병 등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41 콜렉트콜 서비스 요금을 5% 인하하고 5~20%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선택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약관신규와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T는 기본요금(LM, 유선→무선)을 90초당 263원에서 250원으로 5% 인하하고 장시간 통화 이용자에게 유리한 알뜰형 요금제(LM) 출시로 5~20%에 달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알뜰형 요금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가입비 등 등록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다. KT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연간 106억원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콜렉트콜 서비스로 8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요금을 조정할 후대전화 착신 콜렉트콜 관련 매출액은 720억원으로 전체 콜렉트콜 서비스 매출액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KT는 일반 LM통화의 경우 10초당 14.5원(평상시간, 08:00~21:00)을 부과했으나 1541번을 이용해 후대전화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는 통화료로 90초당 263원을 부과, 요금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금호고속 ‘노사화합’ 선언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과 박종균 노동조합 광주분회장은 28일 금호고속 강당에서 박승태 광주지방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통해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노사간 화합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호고속은 60년 부분규 사업장으로도 노동부로부터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왼쪽), 박승태 광주지방노동청장(가운데), 박종균 금호고속 노동조합 광주분회장.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2회 연속 선정됐고, 산자부가 주최하는 국가 생산성 혁신대회에서 노사협력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명운인의원

www.Aurochong.com

명운인의원

명운인의원

명운인의원